

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5권 제3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4, 12, Vol. 15, No. 3, 133-167.
doi <https://doi.org/10.12964/jsst.24013>

창조적 삶의 토대로서 모래의 상징성

The symbolism of sand as the foundation of creative life

진 유 석

Jin Yuseok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창조적 삶의 토대로서 모래의 상징성

The symbolism of sand as the foundation of creative life

진 유 석*
Jin Yuseok

<국문요약>

모래놀이치료에는 여러 가지 치유적 요소들이 있고, 피규어의 수와 규모에 매혹되어 모래의 치유적이고 상징적인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루어져 왔다. 모래는 대지를 나타내고 대지는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 내며 변성하게 하는 모성성의 상징이다. 모성은 우리가 생겨 태어나는 곳이며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래의 상징성과 더불어 내담자들의 삶이 창조되는 토대로서 모래의 긍정적, 지지적, 모성적, 대지적 토대로서의 모래의 상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모래는 우리 안에 있는 모성적, 치유적, 창조적 능력을 자극하고 그 에너지가 배열되게 한다. 긍정적 모성 또는 상처를 치유하는 내면의 힘인 모래에는 상징적으로 치료자도 포함된다. 내면의 모성원형의 힘과 치료자라는 상징적 모성의 지지를 받은 내담자는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갖게 된다.

키워드 : 모래, 대지, 모성성, 모성원형, 토대

* 주저자, 교신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문상담사 / E-mail: marvelousjin32@naver.com



Copyright ©2024,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re are several healing elements in sand play therapy, and research on the healing and symbolic importance of sand has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because it is fascinated by the number and scale of figures. Sand represents the ground, and the ground is a symbol of motherhood that allows all life to conceive, create, and thrive. Motherhood is where we are born and born, and where we grow.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ymbolism of sand as a positive, supportive, maternal, and earthly foundation of sand was discussed as well as the symbolism of s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and stimulates the maternal, healing, and creative abilities in us and allows its energy to be arranged. Sand, which is the inner force of positive motherhood or healing wounds, symbolically includes a counselor. With the power of the inner mother archetype and the support of the symbolic motherhood as a counselor, the client has the power to heal himself.

Key words : sand, Mother Earth, Maternal bonding, Mother archetype, foundation

I. 서론

모래놀이치료에는 여러 가지 치유적 요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규어의 수와 규모에 매혹되어 모래의 치유적, 상징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 및 사례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피규어치료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래놀이치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모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치유력 때문이다. 모래는 지구를 형성하는 물질이며 어머니 대자연의 대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인위적이거나 일시적인 물질들과 의미가 다르다. 모래는 흘러내린 마그마가 굳어서 오랜 세월 속에 풍화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바위가 액체화된 것으로 영겁의 시간이 지나 모래가 되었기 때문에 모래 한 알 한 알에는 지구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래서 William Blake는 모래 한 알갱이 속에 영원이 들어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장미경, 2024).

모래는 표현 그대로 대지를 나타낸다. 대지는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 내며 번성하게 하고 모든 생명이 궁극적으로 소멸되어 돌아가는 곳이다. 대지의 요소들이 비옥하고 단단할 때 동식물의 생명체들이 그 위에서 번성한다. 따라서 대지는 모성성의 상징이다. 모성은 우리가 생겨 태어나는 곳이며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다.

우리는 개인의 어머니를 떠나서도 내면의 모성성이라는 토대 위에 있으며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생명과 삶을 유지하고 번성하는 자연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본성적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돌봐주는 존재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Neumann(1973)에 따르면, 이러한 모성적 기능은 무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모성 경험에 의해서 배열되는 것이다(장미경, 2024). 따라서 불행히도 어린 시절 방임적이거나 학대적인 양육자를 경험한 사람 또는 지지적이지 않은 환경 등을 경험한 사람은 이 지지적이고 온정적이며 포용적인 모성성이라는 안전한 토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안전하지 못한 토대는 밖으로 투사되어 외부 세계와 관계를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계속해서 안전하지 못한 토대에 살고 있다는 감정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중요한 것은 투사를 해소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밖으로 내보내서 그 내용을 되돌리는 것이다(Jung, 1984/2002).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모성경험에 의한 내면의 모성성의 토대는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어린 시절 부정적 경험을 했고 부정적 모성콤플렉스가 발달한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는 발현되지 못한 자질과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발현될 수 있는 노력의 작업을 기울인다면 긍정적 측면이 다시 배열될 수 있다(장미경, 2024).

Weinrib(1983)는 생애 초기의 모성 박탈이 자아 발달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원형적 모성

이미지 손상을 가져온다는 가정하에서 모래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혼란된 우로보로스적 모-자녀 단일체를 상징적으로 다시 만듦으로써 원형적 이미지의 손상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내담자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자는 일시적이지만 긍정적 모성으로 기능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치료자라는 긍정적 모성을 통하여 내담자의 긍정적 모성성이 배열되고 외부의 실제적 모성의 부재에도 스스로의 감정을 담아내고 자아가 상대적으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자기(Self)에너지의 긍정적인 배열, 정신 체계의 자연스러운 회복이며 결과적으로 효율적 자아(ego)의 일관성 있는 출현을 만든다(장미경, 2024).

모래는 내담자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창조하게 한다. 무의식으로 문이 열리게 하는 상징적 표현과 강력한 정서가 촉감적,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인 모든 감각을 일깨운다. 따라서 모래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모성성이자 의식이라는 자녀를 낳는 무의식이다(장미경, 2024). 많은 내담자들이 모래놀이치료 시간에 모래로 무엇인가를 건축하기도 하고 모래를 만지거나 두드리거나 토닥거린다. 또한 모래에 대한 촉감적 느낌을 말한다. 어떤 내담자들은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하거나 또 다른 내담자들은 거칠고 차갑다고 하기도 하고, 한 내담자가 세션에 따라 상반된 감각을 표현하기도 한다. 모래에 대한 내담자의 감각이나 감정은 결국 치료와 치료자에 대한 전이 감정이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모성적 토대를 경험하지 못한 내담자들은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외부에 존재하는 치료자라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치료자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 경험적 자극은 궁극적으로 내담자 안에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토대로 경험되는 모성원형 에너지가 배열되게 한다. 배열된 모성원형 에너지는 내담자의 외상을 치유하고 자아가 다시 성장하고 강화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낳고 성장하게 한다.

모래놀이치료의 목표는 심리적 어려움의 치유이며, 치유의 에너지가 흐르는 모래위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내면 세계와 우리의 주변 세계, 즉 우리의 자연인 본성 세계와 현실적 세계 사이에서 평화로운 균형과 조화를 스스로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Steinhardt, 2013).

따라서 모래놀이치료에서 모래의 상징성과 더불어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삶이 창조되는 토대로서 모래의 긍정적, 지지적, 모성적, 대지적 토대로서의 모래의 상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II. 민담 및 문학에서의 모래(흙)의 상징성

1. 민담에서의 모래(흙)의 상징성

1) 설문대할망 설화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모성원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제주도에도 설문대할망에 관한 전설이 있다. 설문대할망은 흙으로 제주도를 만든 창조신으로 창조 신화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딸인 설문대할망은 치마에 흙을 퍼 담아와 제주도를 만들었는데 설문대할망의 치마폭에서 흘러나와 쌓인 흙이 360여 개 오름이 되었고 설문대할망이 남은 흙을 여러 차례 쏟아부어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한라산이라고 한다. 한라산 봉우리가 너무 뽕족해 그 윗부분을 꺾어 던진 것이 산방산이 되었고 한라산 봉우리가 꺾여서 과인 부분이 백록담이 되었다. 설문대할망은 몸속에 모든 것을 품고 있어 풍요로웠다. 탐라의 백성들은 할망의 부드러운 살 위에서 밭을 갈았으며, 할망의 털은 풀과 나무로 변했다. 또한, 할망의 힘찬 오줌 줄기에서 온갖 해초와 문어, 전복, 소라, 물고기들이 나와 바다를 풍성하게 했다. 이때부터 물질하는 해녀가 생겨나게 되었다(한국민속문학사전, 2012). 할망은 거인으로 묘사되며,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거인처럼 크게 보이듯, 원형적인 ‘할머니, 자연의 어머니(Master Natura)’에게도 크다는 속성이 어울린다(Jung, 1985/2006).

설문대할망이 오백장군을 낳고, 아들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스스로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할망의 생식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의 몸을 내어 생명을 키우는 땅과 여성의 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지가 자신의 기운으로 만물을 탄생시키듯, 여성이 젖을 먹여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할망은 팔죽을 쑤는 노동을 통해 자식들을 길러내는 대지의 수고를 대변한다. 더불어, 자신을 아들들에게 먹임으로써 지모신으로서의 역할을 증명한다(김창현, 2018).

흙이 대지의 풍요로움과 여성의 생식력이 결부되어 태어난 신격인 지모신(地母神)을 상징하는 것처럼 설문대할망 전설에서의 흙은 모성성과 대지의 풍부함, 창조성을 상징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생산물을 땅에서 얻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지는 생활의 터전인 동시에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이다. 설문대할망이 흙으로 만든 제주도에서 백성들은 땅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설화에서는 제주도가 화산섬이 아닌, 설문대할망이 치맛자락에 흙을 담아 만든 섬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분명 모성 원형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모성 원형의 성질은 ‘모성적인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여성적인 것에서 비롯된 마술적인 권위로,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지혜와 정신적 숭고함을 지닌다. 또한, 자애로움과 돌봄, 유지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풍요와 영양을 공급하는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Jung, 1984/2002). 그것을 더욱 강조하듯 치

맛자락이 등장한다. 흙과 치맛자락을 강조하는 것은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모성적 여성성을 강조하는 의미이고, 치맛자락에 담아준다는 것은 모성적 여성성의 수용성, 치유력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모래와 치료자의 담아줌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외상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자아를 압도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의 힘이 배열되는 것을 의미한다(장미경, 2024). 그럴 때 새로운 세상 즉 새로운 삶이 창조된다.

2) 두꺼비집 놀이와 옴두꺼비의 슬픈 자식 사랑 전설

어린 시절 모래나 흙을 가지고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동요를 부르면서 두꺼비집 놀이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래에 한 손을 묻고 다른 한 손으로 모래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 끝나면 나머지 한 손을 살짝 빼내어 둥근 동굴 같은 모래집을 만드는 놀이이다.

두꺼비집 놀이는 ‘옴두꺼비의 슬픈 자식 사랑 전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 설화에 따르면, 옴두꺼비는 알을 품게 되면 평상시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알을 품은 옴두꺼비는 평소에는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독사를 찾아가 독을 발산하며 싸움을 하다가 결국 독사에게 잡아먹히게 되는데 죽기 전 독사의 뱃속에서 독을 쏘아 독사도 죽게 만든다. 옴두꺼비알들은 어미 옴두꺼비와 독사를 먹이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새끼 옴두꺼비로 태어난다(김수용, 2021). 동요에서 ‘헌집’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지고지순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고 ‘새집’은 어미의 육신을 먹고 자라나는 새끼 옴두꺼비들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영웅 신화에서 영웅이 괴물의 뱃속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그 동물의 살점을 잘라 먹는 장면은 독특하게 반복되는 모티프이다. 이는 영웅이 ‘영양을 공급하는 어머니’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Jung, 1985/2024).

독일의 민담 ‘세 개의 깃털’에서는 왕이 세 아들들에게 왕위 계승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부여하며, 어리숙한 셋째 왕자가 지하 세계에서 작은 두꺼비들에게 둘러싸인 크고 뽕뽕한 두꺼비를 만나 과제를 해결하고 왕위를 물려받는 이야기가 전개된다(Grimm & Grimm, 2001). von Franz(1972/2020)는 이 이야기 속 커다란 두꺼비를 작은 두꺼비들의 어미이자 대지의 여신으로 해석하였고, 셋째 왕자가 풍부한 생명력을 지닌 대지의 여신을 만나 여성성과 접촉함으로써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김민경, 2015).

어미의 몸속에서 새롭게 잉태된 생명은 그 체로 있어서는 안 되고 깨고 나오는 분투가 필요하다. 내담자들이 단순히 모래를 만졌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운 세상으로 깨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래놀이치료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행착오의 분투를 한다. 그러나 혼란스러워 보여도 시행착오를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한 걸음씩 새로운 자아의 창조로 나아간다. 깰 수 있게 허용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파괴하는 모성성 또한 모성적이다. 모래놀이치료자는 밖에서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알

이 속에서 깨고 나올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 접촉하면서 길을 안내한다.

2. 동화에서의 모래(흙)의 상징성

1) 꼬마 삼보이야기

꼬마 삼보가 생일선물로 엄마에게 빨간 코트와 파란 바지를, 아빠에게 자주색 구두와 초록색 우산을 선물 받은 후에 으쓱대며 자랑하기 위해 정글로 산책을 가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정글에서 맹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네 마리가 어린 삼보의 옷과 구두와 우산을 빼앗고 저희들끼리 다투다 서로 자기가 멋쟁이라고 서로의 꼬리를 물고 나무를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녹아서 버터가 되고 삼보는 빼앗긴 옷과 구두와 우산을 되찾고 호랑이 기름으로 구운 팬케이크를 맛있게 먹는다는 이야기이다(Bannerman, 1899/2013).

소년은 선물로 받은 옷과 우산을 자랑하기 위해 정글로 모험을 떠난다. 소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모험을 시작했지만 호랑이들에게 선물로 받은 옷과 구두와 우산을 모두 빼앗긴다.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들이 나무를 가운데 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이 제일 멋지다며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소년은 빙글빙글 돌고 있는 호랑이들을 보고 얼른 내려가서 잃어버렸던 옷과 구두와 우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에서 싸우는 호랑이들은 소년의 상상과 창조성을 수용하지 않는 부정적 모성 즉 부정적 모성콤플렉스의 상징일 것이다. 그것은 소년의 마음속에 늘 갈등을 만들어내며 진정한 자신과 충돌한다. 그런데 이 호랑이들이 한데 뒤엉켜 나무 주위를 돈다. 그것은 내면에 있는 치유를 향한 모성 원형 에너지의 작용일 것이다. 그 작용은 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나무는 여성 원리를 상징하며 양육자, 보호자, 지지자로서의 태모(太母)를 나타내며 태모가 지배하는 풍요의 호수로서의 모태의 힘을 상징한다(Cooper, 1978/1994).

호랑이가 녹아 생성된 기름은 나무에 흡수되어 성장의 거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치 포도가 대지의 상징인 오크나무 통에서 숙성되어 와인으로 변모하듯, 소년 역시 독립과 퇴행을 반복하며 성장의 여정을 거쳐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게 된다.

나무는 부정적 모성성을 극복하며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간다. 나무의 뿌리는 대지의 흙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흙은 나무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토대가 된다. 뿌리가 흙에서 양분을 흡수하며 나무를 지탱하듯, 흙은 내면으로의 연결과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무의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모습은 초월과 극복의 상징을 연상시킨다. 내면과 연결되기 위해 무의식의 깊은 영역으로 내려가야 다시 위로 상승할 수 있듯이, 소년은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재탄생하게 된다. 나무는 대지의 흙과 연결된 근원적 존재로서 삶의 시작이자 원천이며, 어머니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Jung, 1985/2006). 또한, 나무는 모래와 흙의 상징적 공간을 통해 모성적 보호와 회복의 에너지를 제공하며, 흙이나 모래는 소년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기반이 된다.

내담자들도 모래에 두꺼비집을 만들기도 하고 물을 부어 동굴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산을 만들어 터널을 내어 기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기도 한다. 또는 높은 신전이나 탑을 만들기도 하고 중심으로 모래를 높이 쌓아 정상에 나무 피규어를 심기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상처를 극복하려는 내면의 창조의 시도일 것이다.

2) 모래 요정과 다섯 아이들

영국 런던에서 살던 다섯 남매가 초록빛 정원과 과수원이 딸린 하얀 집이 있는 시골 마을에서 여름을 보내게 된다. 다섯 아이는 집 근처 자갈 채취장에서 모래를 파고 놀다가 모래 구덩이에서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모래 요정 사미아드를 발견하게 되고 다섯 남매가 매일 아침 그에게 소원을 빌며 일어나는 소동을 그린 이야기이다. 소원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루어지고 해가 지면 모든 마법은 풀려 버리고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다. 온갖 소동을 겪은 후 아이들은 다시는 소원을 빌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모래요정은 모래 구덩이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Nesbit, 1899/2006).

다섯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모래요정에게 근사한 소원을 빌지만 항상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져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모험 들을 겪는다.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부자도 되어 보았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 봤지만 어느 것도 행복하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된다. 모험을 겪으며 아이들은 독립과 퇴행을 반복하며 점점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아이들은 소원으로 인해 험난한 모험을 겪고 새로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모래요정을 찾아가게 되고 모래 요정은 안전기지로서 항상 모래 구덩이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Neumann은 '위대한 어머니 여신'에서 점토 그릇을 흙과 모래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영양을 공급하는 모성원형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점토 그릇은 모래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모성적 공간으로, 내담자가 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에서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Neumann, 1974/2009). 모래 구덩이는 점토그릇처럼 모성적 공간의 역할을 하고 모래요정은 아이들에게 모성의 영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들의 바람과 고민이 담긴 소원을 빌며 일어나는 모험은 건강한 자아(ego)를 발달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자기(Self)에너지와 모성적 에너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모래 구덩이에서 나온 모래 요정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용적이고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모성성의 상징일 것이다.

3. 시에서의 모래(흙)의 상징성

1) 서정주의 시 「경주소견」

아무도 이것을 주저앉힐 힘이 없는 때문이겠지,
왕릉(왕릉)들은 노랑 송아지들을 얹은채
에드벌룬처럼 모조리 하늘에 두옹둥 떠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아랫두리를 벗은 어린아이 모양이 되어
그 끈 밑에 매어달려 위험하게 부유하고 있었다.

(중략)

또 저 못 왕릉들이 즈이 하늘로 가 버리는 것을
그 살의 중력으로 말리고 있는 것은

- 「경주소견」 중 -

비옥한 대지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흙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왕릉이 에드벌룬처럼 하늘에 떠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아랫두리를 벗은 어린아이가 되어 그 끈 밑에 매달려 위험하게 부유하고 있다. 흙은 대지에 대한 연결과 보호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흙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허공을 떠돌게 된다. 흙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는 왕릉은 서정주의 정서적 퇴행과 모성적 보호의 부재를 상징한다. 왕릉들이 하늘로 가 버리는 것을 토함산 모래와 흙인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품어주고 포용해 주는 모성의 상징인 석굴암 본존불 살이 보호해주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그의 어린 시절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가 투영되어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어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하는 것은 현실에의 정착을 의미하고,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위험하게 공중에 떠있는 것은 대지의 어머니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허공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다. 떠오름은 자신을 붙잡는 모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고 그때에만 자유를 느끼게 된다. 창조의 여신인 어머니-대지에 발을 딛지 않고 허공에서 생겨난 창조물들은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땅으로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져 뿌리내림은 해결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강철중, 2007).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는 남성의 불확실성, 불안정감, 우울감, 조급함에 영향을 주고, 무력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자살을 조장하기도 한다(Jung, 1964/2013). 서정주는 한국전쟁의 고통으로 정신질환을 얻었고 피난 시절 자살 시도까지 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수치심과 연

결되어 있었고 이후의 명령하고 다스리는 모성 이미지는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로 작용했다. 이 시는 모성성의 결핍으로 대지에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험, 주저앉힐 힘 즉, 모성의 힘의 부재를 형상화하고 있고, 자신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 원형인 아니마를 선덕여왕 등 신라의 여인들에 투사함으로써 품어주고 지지해주는 긍정적 모성 경험의 부재에 따른 모성콤플렉스를 극복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정영진, 2023).

2) 박노해의 시 「도토리 두 알」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 없는 도토리
또 한 알은 크고 윤나는 도토리
(중략)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마라, 너는 자신을 묻어 참나무가 되리니

- 「도토리 두 알」 중 -

어미 참나무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싹이 트고 자라난 도토리들, 타고난 모습이 모두 제각각이라 '내가 더 크고 빛나는 존재'라고 외치며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필사적으로 투쟁을 벌인다.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진정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도토리는 영웅의 여정을 떠난다.

빈 숲으로 던져지는 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 안으로 내려앉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느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많은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막다른 길에 다다라 삶이 진전되지 않을 때 자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자연에서 순수한 아름다움과 치유의 힘을 발견한 후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한다.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향적 관점에서 퇴행일 수 있으나, 스스로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퇴행의 공간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von Franz, 1972/2020). 숲에는 수많은 자연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을 성장시키는데 흙의 긍정적인 돌봄과 치유적인 에너지 배열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흙은 성숙과 자기 발견을 위한 내적 여정을 상징한다. 도토리가 흙 속 깊은 곳에 묻혀 참나무가 되는 과정은 흙이 주는 보호와 성장의 힘을 드러낸다. 작은 도토리가 자신을 흙 속으로 던져 깊이 파고드는 모습은 모래놀이치료에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흙과 접촉하는 내담자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흙 속 깊이 묻힌 도토리는 마치 영웅의 여정을 떠나듯 자기 자신을 내면 깊이 탐구하며, 오래된 자아를 묻고 참나무로 재탄생할 준비를

한다.

자기 자신 깊은 곳으로 몰두하는 것은 바로 대지로 파고 들어가는 것 즉, 대지인 어머니로 되돌아간 죽은 자와 같다. 무의식의 어둠 안에 보물 하나가 숨겨져(Jung, 1985/2006) 있듯이, 도토리도 대지 안의 깊은 어둠을 파고 들어가 오래된 자아(ego)를 묻어 길고 긴 여정 끝에 참나무라는 씨앗의 보물인 자기(Self)를 찾아 대지를 뚫고 나오게 된다.

Ⅲ . 모래놀이치료 사례에서 삶의 토대로서 모래의 상징성

1. 사례 1

11세 초등 5학년 남아인 내담아동 영광(가명)이는 고등학생의 공격으로 외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집에 혼자 있거나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들을 보면 불안해하는 PTSD가 있어 상담에 의뢰되었다. 영광이는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으로 언어치료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낮은 학습성취도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또한 학습성취와 관련하여 부모, 교사들을 포함한 어른들의 부정적 피드백, 또래들의 놀림 등의 상처가 있는 학생이었다.



[그림 1] 영광이의 9회기 모래 사진



[그림 2] 영광이의 10회기 모래 사진

영광이는 9회기 모래놀이치료시간에 손가락으로 모래를 파고 손으로 모래를 느껴보더니 포크레인삼으로 흙을 푸면서 “오늘은 모래가 묵직해요.”라고 말하였다. 공사장 차량으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손을 포크레인삼처럼 만들어서 모래를 푸고 땅을 일구었다. 제주도과 한라산을 만들고 “밥그릇에 있는 밥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작은 그릇에 물을 부어 한라산 정상에 꽃고 “제주도 완성”이라고 외쳤다. “제주도는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제주도를 만들

고 나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영광이는 자신이 태어난 제주의 오름을 포크레인과 손을 가지고 만들었다. 영광이는 이날 자신이 만든 제주에서 다시 태어났다. 과거에 폭력에 희생당하고 또래들의 놀림으로 자신감 없던 아동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한 아이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영광이가 한 것은 손과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파고 쌓으며 제주를 만든 것이다. 즉 거칠고 단단해진 흙을 파내고 다시 경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을 만들었다. 영광이가 손을 포크레인처럼 만들어 흙을 파고, 밥그릇을 연상하며, 제주도를 완성하는 과정은 영광이의 치유와 창조적 에너지가 배열과는 과정으로 보이고, 모래를 손으로 파는 것(digging)은 모래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Steinhardt, 2000/2010). 농부들이 봄이 되면 겨우내 단단해진 흙을 갈아엎고 파종을 준비하는 것과 유사하다. 새로운 삶의 창조이다.

제주도는 그 자체가 오름이고 오름은 설문대할망이 치마에 흙을 퍼날라 만들었다는 전설처럼 영광이는 자신의 손으로 모래를 퍼날라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 모성성으로 오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창조이며 자존감을 유지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신의 긍정적, 원형적 모성성의 배열이다. 모래는 우리 안에 있는 모성적, 치유적, 창조적 능력을 자극하고 그 에너지가 배열되게 한다. 여기서 긍정적 모성 또는 상처를 치유하는 내면의 힘인 모래에는 상징적으로 치료자도 포함된다. 치료자는 과도기적으로 지지적인 모성적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내면의 모성원형의 힘과 치료자라는 상징적 모성의 지지를 받은 내담자는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했음을 보여주었다.

10회기에서 영광이는 농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농장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농장이 크게 느껴진 것은 영광이가 모래놀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재구성하며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자신이 크게 느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은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에너지를 뚫어 소통하게 만들 듯이(장미경, 2024) 치유의 에너지가 흐르는 두 손으로 대지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듯 모래 위에 모를 심고 고구마씨를 뿌려주었다. 물은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므로(Cooper, 1978/1994) 창조적 삶의 터전인 대지에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물도 뿌려주었다.

돌멩이 3개를 모래에 묻고 “송편이에요. 숙성이 아주 잘 됐어요.”라고 말하였다. 욕조에 모래와 물을 넣고 “떡국 완성.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2000명이 떡국 나누어 먹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뽑아줄 것 같아요. 원래 꿈은 해군이었는데 오늘 모래놀이하면서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라고 당당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영광이는 내면에 있는 긍정적 모성성으로 스스로 땅을 일구어 내면의 밭을 만들고 풀과 고구마를 심고 물도 뿌려주면서 정성껏 돌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밭에 수확물이 생기듯

영광이의 내면도 풍성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릇에 물을 담아 한라산 천지를 표현하고, 제주도가 한라산을 품고 있는 모습에서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는 모습을 연상하고, 육조에 모래와 물을 담아 떡국을 만드는 상상을 하였다. 이는 여성적인 수용원리와 풍요로움으로(Cooper, 1978) 스스로를 담아주는 내면의 성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처럼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려는 의지와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발휘하여 관계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담 아동이 송편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송편을 모래에 묻어 숙성시키듯 아동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 모성성을 극복하고 긍정적 모성성으로의 내면을 모래에 묻어 성장시켜 새로운 삶의 창조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사례 2

9세 초등 2학년 남아인 내담아동 새봄이(가명)는 ADHD 약물 부작용인 틱증상으로 인한 학교생활에서의 불편함과 모와의 갈등과 같은 심리적 불안을 보여 모에 의해 상담에 의뢰되었다. 모는 새봄이를 친구들과 잘 지내고 예의가 바른 아이라고 소개하였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과도하게 배려하다 보니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이 많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하였다.



[그림 3] 새봄이의 5회기 모래 사진



[그림 4] 새봄이의 10회기 모래 사진

새봄이는 처음 모래를 만지면서 자신의 내면과 접촉되는 순간 “신기한 느낌이다.”라고 반응하였고, 모래는 기본적인 감각적 경험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회기를 제외하고 모든 회기 동안 피규어 사용 없이 침묵 속에서 모래만으로 놀이를 하였다. 세상은 태초의 어둠과 고요라는 절대적 침묵 속에서 창조되었듯이(장미경, 이여름, 2020) 새봄이도 침묵 속에서 모래와 접촉하여 퇴행과 독립을 반복하며 재탄생을 위한 자신만의 세상을 창

조하고 있었다.

새봄이는 5회기 모래놀이치료시간에 모래와 물을 버무리면서 “물뿌리면 모래가 부드러워지면서 따뜻해져요.”라고 말하였다. 모래는 내담자를 움직였고 모든 감각이 일깨워져 몸에서의 느껴짐을 “소리 좋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이는 내면의 자신과 연결되어 자기(Self)에너지가 배열되는 신성한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봄이는 이어서 높은 산에 분화구를 만들고 분화구에 물을 가득 붓고 한 쪽 귀를 바짝 대고 한동안 침묵 속에서 가만히 소리를 듣고 있는 몰입의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치료자도 정지된 그 순간의 신성함을 함께 느끼며 몰입되어 내담자의 내면으로 스며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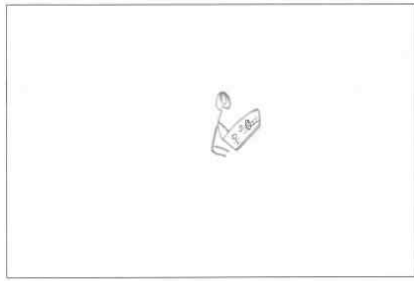
새봄이가 모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촉각적 반응에 집중하는 것은 부정적인 모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한 낯은 자아에 대한 태도로 보인다. 낯은 자아를 정화하여 재탄생하는 순간에 치료자도 함께 몰입하며 순간의 신성한 에너지를 느꼈다. Schore(2019/2022)는 감정을 주고받는 심리치료에서 ‘말의 이면’에 있는 내담자의 오른 뇌와 치료자의 오른 뇌의 무의식적이고 정동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상징적인 작업이 깊은 무의식 체계의 접근을 돕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정동적인 순간이 고조되었을 때 내담자의 무의식에 있는 암묵-절차 기억이 재활성화되어 치료적 관계에서 재연된다고 설명하였다. 새봄이는 신성하고 고요한 무의식적인 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래를 주 무르고, 두드리고, 느끼고, 창조하는 등의 탐색을 이어나갔고, 이는 치유적인 원형 이미지를 수반하는 정서 경험이며, 신성성 경험은 조용한, 침묵의, 말 없음의 정점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장미경, 이여름, 2020).

10회기 모래놀이치료시간에 새봄이는 자신의 손에 의해 잘 다듬어진 삶의 터전인 대지 위에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집을 만들고 집 주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듯 손바닥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말투와 목소리가 변한 것 같아요. 2학년에서 3학년 4학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Steinhardt(2000/2010)는 핸드프린트에 대하여 존재에 대한 구체적 표시, 의식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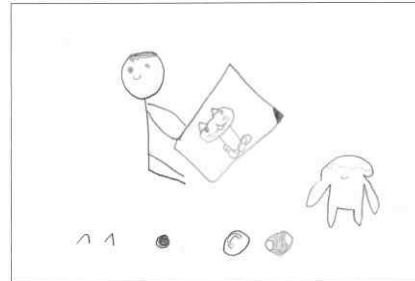
5회기에서 높은 산 분화구에 물을 가득 붓고 귀를 대고 가만히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마도 스스로의 성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말투와 목소리가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내면의 변화를 신체로 직접 느끼고 있는 것이다.

종결 회기인 11회기에 새봄이는 상담 전 내 모습과 상담 후 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상담 전에는 ‘들고 있는 그림이 작고 못 그린 그림’인데 상담 후에는 ‘들고 있는 그림이 크고 잘 그린 그림’이라고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맞추던 새봄이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자기원형에너지의 배열로 자아-자기 축의 재연결 과정이 촉진되어 일상 생활에 질서가 잡히고 정서 조절 기능이 강해져(장미경, 2024) 자신을 잘 표현하는 아이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래는 보호와



[그림 5] 새봄이의 그림(상담 전 내 모습)



[그림 6] 새봄이의 그림(상담 후 내 모습)

성장의 모성적 힘으로 새봄이를 움직여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면을 재구성하여, 새봄이의 그림에서처럼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토대를 창조하게 만들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래의 상징성과 모래놀이치료에서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삶이 창조되는 토대로서 모래의 긍정적, 지지적, 모성적, 대지적 토대로서의 모래의 상징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모래는 자연 그대로의 대지를 나타내고 대지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 내며 번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이 소멸되어 다시 돌아가는 곳이다. 대지는 모성성과 치유의 상징이고 모성은 우리가 생겨 태어나는 곳이며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다.

모성원형은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모성원형에너지는 돌보는 것, 자애로운 것,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부정적 모성원형에너지는 어둠과 심연, 삼키고 유혹하고 독살하는 것, 성장을 방해하고 퇴행시키고 잡아먹는 차가운 측면을 갖고 있다(Jung, 1984/2002). 원형에너지의 이중성 중 어떤 측면이 더 발현 또는 배열될 것인가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원형적 발현은 외적인 자극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Neumann, 1973). 두 내담 아동의 사례에서처럼,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모래와 깊이 접촉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모성적, 치유적, 창조적 능력이 자극되고 긍정적 모성원형에너지가 배열되어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모래는 내담자를 움직이게 하고 창조하게 한다. 무의식으로 문이 열리게 하는 상징적 표현과 강력한 정서가 모든 감각을 일깨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공간이 제공되면 내담자는 내면에 흐르는 상상의 판타지를 모래 장면으로 창조하게 되고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 무의식의 의식화는 내담자의 치유와 인격의 확장과 성숙이라는 창조적 결과를 이끈

다(장미경, 2024).

Shakespeare는 ‘우리의 몸은 정원이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사’라고 말했다(Shakespeare, 2000). 내담자는 자신의 생명을 잉태하고 몸을 만들어 준 모성으로서의 대지인 모래 정원 위에서 손과의 접촉을 통해 깊은 내면의 무의식이 정원사가 되어 스스로 치유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토대를 묵묵히 창조하고 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창조적 삶의 토대로서의 모래 앞에서 자유롭고 보호적인 공간과 더불어 담아주고 견뎌주는 시간으로 신성하게 머물고 있다.

참고문헌

- 강철중 (2007). 남성의 모성콤플렉스. 심성연구, 22(2), 79-151
- 김민경 (2015). 모래놀이치료에서의 ‘두꺼비’ 상징에 대한 고찰. 모래놀이상담연구, 11(2), 6-25
- 국립민속박물관 (2012).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도서출판 평사리.
- 김창현 (2018). 제주 여성신화에 나타난 글로컬리티와 세계화 전략 - ‘설문대할망’과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0(0), 347-372
- 박노해 (2010).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느린걸음.
- 서정주 (1994). 미당 시전집 1. 민음사.
- 장미경 (2024).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2판. 학지사.
- 장미경, 이여름 (2020). 놀이의 신성성과 치유 목적성.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1(2), 1-43
- 정영진 (2023). 서정주의 모성 콤플렉스와 영원성 시학의 여정-아니마의 상징화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74(0), 169-206
- Bannerman, H. (2013). 꼬마 삼보 이야기 (허문선 역). 계림북스. (원서출판 1899)
- Cooper, J. C. (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글방. (원서출판 1978)
- Grimm J. L. C., & Grimm, W. C. (2001). 그림형제가 들려주는 독일 옛이야기 (김재혁 역).웅진주니어.
- Jung, C. G. (1984/2002).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서 2권.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솔출판사.
- Jung, C. G. (1985/2006). 영웅과 어머니 원형.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서 8권.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솔출판사.
- Jung, C. G. (2013). 인간과 상징. (이부영 외 역). 열린책들. (원서출판 1964)
- Nesbit, E. (2006). 모래요정과 다섯 아이들. (햇살과나무꾼 역). 비룡소. (원서 출판 1899)

- Neumann, E. (1973). *The child*. Shambhala.
- Neumann, E. (2009). 위대한 어머니 여신 (박선화 역). 살림출판사. (원서출판 1974)
- Schore, A. N. (2022). 감정중심의 오른뇌 정신치료 (강철민 역). 학지사. (원서 출판 2019)
- Shakespeare, W. (2000). 원어와 함께 읽는 셰익스피어 명언집 (이태주 역). 범우사.
- Steinhardt, L. F. (2010). 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융의 모래놀이치료 (김옥경 역). 학지사. (원서출판 2000)
- Steinhardt, L. F. (2013). *On becoming a Jungian sandplay therapist: The healing spirit of sandplay in nature and in therap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von Franz, M. L. (2020). 민담 속의 여성성 (박영선 역). 집문당 출판사. (원서출판 1972)
- Weinrib, E. L. (1983). *Images of the Self: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Sigo Press.
- 김수용 (2021년07월21일). 두껍아 두껍아 헌집 즐겁게 새집 다오. *두꺼비마을신문*. pp. 15

투고일: 2024. 09. 30
수정일: 2024. 12. 15
게재확정일: 2024. 12. 24

The symbolism of sand as the foundation of creative life


Jin Yuseok*

<Abstract>

There are several healing elements in sandplay therapy. However, research on the healing and symbolic importance of sand has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as studies have been more fascinated by the number and scale of figures used. Sand represents the earth, and the earth is a symbol of maternity that allows all life to conceive, create, and thrive. Maternity is where we are born and raised, and where we grow. Therefore, in this study, both the symbolism of sand itself and its role as a positive, supportive, maternal, and earth-lik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life by clients wer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and stimulates the maternal, healing, and creative abilities within us and allows this energy to be constellated. Sand, which represents the inner force of positive mother and healing of wounds, symbolically includes the therapist. With the power of the inner mother archetype and the support of symbolic mother as represented by the counselor, the client gains the power to heal themselves.

Keywords : sand, Mother Earth, maternity, Mother archetype, foundation

* Corresponding author, Counsel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mail: marvelousjin32@naver.com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 INTRODUCTION

Sandplay therapy encompasses various healing elements. While many are captivated by the number and scale of the figures used, discussions and case studies highlighting the therapeutic and symbolic importance of sand itself have been relatively limited. However, the term “Sandplay therapy” is used instead of “figure therapy” precisely because of the symbolic and healing qualities inherent in sand. Sand is a fundamental material that forms the earth, serving as the foundation of Mother Nature’s land. Unlike artificial or temporary substances, sand carries a deeper significance. It is created from magma that solidified and underwent weathering over countless years. Each grain of sand represents the history of the earth, form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William Blake famously expressed this idea, stating that we could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Jang, 2024).

Sand, in its essence, represents the earth. The earth is where all life is conceived, created, thrives, and ultimately returns at its end. When the elements of the earth are fertile and stable, plants and animals thrive upon it. Thus, the earth symbolizes maternity; it is where we are born and where we grow.

Even beyond our personal mothers, we live on a foundation of inner maternity that allows us to care for and love ourselves. This is the natural way life sustains and thrives. Without this innate function, we could not survive a single day without someone to care for us. According to Neumann (1973), this maternal function does not arise automatically from nothing; instead, it is constellated by the real and physical maternal experiences an individual encounters (Jang, 2024). Unfortunately, individuals who experienced neglectful or abusive caregivers or grew up in unsupportive environments are likely to lack a secure foundation of supportive, nurturing, and embracing maternity.

This insecure foundation is often projected outward, leading individuals to perceive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external world negatively. This perpetuates a vicious cycle, reinforcing the feeling of living on an insecure foundation. The key is to resolve these projections by retrieving and reintegrating the content unknowingly cast outward (Jung, 1984/2002). On a positive note, the foundation of inner maternity shaped by outer experiences is not deterministic. Even those who had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or developed a negative maternal complex possess untapped qualities and potential within. Through dedicated effort and inner work, these latent aspects can emerge, allowing the constellation of more positive traits (Jang, 2024).

Weinrib (1983) suggested that early maternal deprivation causes damage to the archetypal maternal image, which severely disrupts ego development. Sandplay therapists aim to restore

this damage by symbolically recreating the ouroboric mother-child unity. Until the client is capable of recovery through their own strength, the therapist temporarily functions as a positive mother. Through the real presence of the therapist as a positive mother, the client can constellate a positive mother image. This allows the client to contain their emotions and achieve a relatively functional ego, even in the absence of actual external maternal support. This process facilitates the positive constellation of the Self's energy, the natural restoration of the psychic system, and, ultimately, the consistent manifestation of an efficient ego (Jang, 2024).

Sand encourages clients to move and create on their own. Symbolic expressions and powerful emotions, which open the door to the unconscious, awaken all senses—touch, sight, sound, and smell. Thus, sand represents the maternity ingrained in our being and the unconscious that gives birth to consciousness (Jang, 2024).

During Sandplay therapy, many clients build structures with sand, touch it, tap it, or pat it. They also describe their tactile impressions of the sand. Some say it feels soft and warm, while others find it to be rough and cold. A single client may even express opposing sensations in different sessions. These sensory and emotional reactions to the sand reflect transference feelings toward the therapy and the therapist. Cli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a safe and supportive maternal foundation need to encounter such an environment during Sandplay therapy, provided by the therapist's presence as a secure and supportive figure. This experiential stimulation gradually constellates the archetypal mother energy within the client, establishing it as a safe and supportive foundation. This constellated archetypal mother energy heals the client's trauma, allowing the ego to grow, strengthen, and foster the development of a new and thriving life.

Part of our purpose in Sandplay therapy is to heal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part is coming into balance and harmony—on the sand where the energy of healing flows—within ourselves and with the world around us, living peacefully between nature and culture (Steinhardt, 2013).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plore not only the symbolism of sand but also its role as a positive, supportive, maternal, and earth-lik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life as experienced by clients in Sandplay therapy.

II. The Symbolism of Sand (Earth) in Folktales and Literature

1. The Symbolism of Sand (Earth) in Folktales

1) The Legend of Seolmundae Halmang

In Korea, many legends are associated with the mother archetype, including the legend of Seolmundae Halmang from Jeju Island. Seolmundae Halmang is a creator deity said to have formed Jeju Island using earth, making her story more akin to a creation myth. According to the legend, Seolmundae Halmang, the daughter of the Jade Emperor of Heaven, carried earth in her skirt to create Jeju Island. The earth that spilled from her skirt formed the island's 360 volcanic cones, while the remaining earth she poured out eventually shaped Hallasan Mountain. The story goes that when Hallasan's peak turned out too sharp, she broke off the tip and threw it, forming Sanbangsan Mountain. The depression created at the peak became Baengnokdam Crater. Seolmundae Halmang embodied abundance, carrying all things within her body. The people of Jeju plowed fields on her soft flesh, and her body hair transformed into grass and trees. Her powerful streams of urine filled the seas with seaweed, octopus, abalone, conch, and fish, enriching the ocean. From this abundance arose the diving women, or haenyeo, of Jeju Island (Korean Folk Literature Dictionary, 2012). Seolmundae Halmang is described as a giant, reflecting how young children perceive their mothers as towering figures. Similarly, the archetypal "grandmother" or *Master Natura* is fittingly associated with largeness in scale (Jung, 1985/2006).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giving birth to "Five Hundred Generals," preparing meals for her sons, and ultimately offering herself as their food symbolically reflects the reproductive vitality of women and the nurturing essence of the earth. Just as the earth gives rise to all living things through its energy, and women nourish children with their milk, Seolmundae Halmang embodies the labor of the earth. Her act of making red bean porridge to feed her sons reflects this. Furthermore, by offering herself as sustenance for her children, she fulfills the role of earth mother goddess (Kim, 2018).

Just as the earth, intertwined with the abundance of the land and feminine fertility, symbolizes the earth mother goddess, the soil in the Seolmundae Halmang legend symbolizes maternity, the richness of the land, and creativity. In the agricultural societies of the past, the earth was both the foundation of life and the source of all creation, as all produce and resources came from the land. Through the land that Seolmundae Halmang created with soil, the people of Jeju were able to establish their homes and livelihoods.

In this legend, Jeju Island is not portrayed as a volcanic island but as a creation formed by Seolmundae Halmang, who filled her skirt with soil to make the island. She clearly

symbolizes the mother archetype. The mother archetype is “maternal.” It is a magical authority that originates solely from the feminine, possessing wisdom and spiritual nobility that transcend ordinary understanding. Additionally, it enables compassion and care, facilitates sustenance and growth, and plays the role of a provider, supplying abundance and nourishment (Jung, 1984/2002). The emphasis on her skirt further highlights this. By focusing on the soil and the skirt, the story emphasizes the nurturing and inclusive qualities of the maternal feminine. The act of gathering the soil in her skirt symbolizes the receptivity and healing power of the maternal feminine. This parallels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where, through the sand and the therapist’s containment, the client begins to constellate an inner energy that accepts their trauma without allowing it to overwhelm their ego (Jang, 2024). This process ultimately fosters the creation of a new world—or a renewed life.

2) The Toad House Game and the Legend of the Sad Love of the Toad for Her Children

Many children in Korea have probably played the “Toad House” game while singing the song “Toad, Toad, give me an old house, and I’ll give you a new one.” In this game, we would bury one hand in the sand and gently tap it with the other hand while singing. Afterwards, we would carefully remove the other hand to create a round, cave-like sand house.

The Toad House game is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legend of the Sad Love of the Toad for Her Children. According to the legend, when the female toad lays her eggs, she behaves unusually. She approaches a venomous snake, which she would typically avoid, and fights it by emitting poison, eventually being eaten by the snake. Before her death, however, she releases poison from the snake’s belly, killing the snake as well. The toad eggs, now nourished by the mother and the snake, hatch into strong and healthy baby toads (Kim, 2021). In the song, the “old house” symbolizes the self-sacrificing love of the mother, who gives up her own body for her children, and the “new house” refers to the baby toads that grow and thrive by consuming their mother’s body.

In the hero mythologies widespread across the world, a recurring motif is that of the hero enduring hunger inside the belly of a monster, ultimately cutting off a piece of the creature’s flesh to eat.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hero being within the “nourishing mother,” in a similar context (Jung, 1985/2006).

In the German folktale “The Three Feathers,” the king gives his three sons three tasks to determine who will succeed him as heir. The story unfolds with the youngest and most naïve prince meeting a large, fat toad surrounded by small toads in the underground world, solving the tasks, and ultimately inheriting the throne (Grimm & Grimm, 2001). von Franz (1996) interpreted the large toad in the story as the mother of the smaller toads and a goddess of the earth. She believed that by encountering the goddess, rich in life force, the youngest

prince was able to make contact with the feminine and thus become a hero (Kim, 2015).

Once life is newly conceived within the mother's body, it cannot remain in that state and requires a struggle to break free. Clients do not simply emerge into a new world by merely touching the sand. They go through trials and errors, using what they experience in Sandplay therapy to realize it internally and in their lives. Although it may appear chaotic, with each trial and error, they unknowingly take a step forward toward the creation of a new ego. Allowing the breaking free and destroying the outcome is also maternal. The Sandplay therapist gently taps from the outside, guiding the way by sensing whether it is time for the egg to break and emerge.

2. The Symbolism of Sand (Earth) in Fairy Tales

1) The Story of Little Black Sambo

The story begins when Sambo receives a red coat and blue trousers as a birthday gift from his mother, and purple shoes and a green umbrella from his father. Proud of his new gifts, he goes for a walk in the jungle to show them off. In the jungle, four tigers, the kings of the wild, take Sambo's clothes, shoes, and umbrella. The tigers are vain and each thinks that it is better dressed than the others. They argue among themselves and chase each other around a tree, eventually turning into butter. Sambo then retrieves his stolen items and enjoys delicious pancakes made from the tiger butter (Bannerman, 1899/2013).

The boy embarks on an adventure to show off the clothes and umbrella he received as gifts. Filled with confidence, he begins his journey but soon has everything he received taken by the tigers. As the boy walks along, crying, he hears the tigers fighting nearby. Each claims to be the most stylish, their tails locked in each other's mouths as they circle a tree. The boy climbs the tree and looks down. Seeing the tigers spinning in circles, he quickly descends, retrieves his lost clothes, shoes, and umbrella, and returns home.

In this story, the fighting tigers symbolize the negative mother, or the negative maternal complex, which fails to accept the boy's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is represents an inner conflict within the boy, constantly clashing with his true self. However, the tigers become entangled and circle the tree. This could symbolize the action of the maternal archetypal energy, which strives toward healing. This process takes place around a tree deeply rooted in the earth. The tree also symbolizes the feminine principle, the nourishing, sheltering, protecting, supporting aspect of the Great Mother, the matrix and the power of the inexhaustible and fertilizing waters she controls (Cooper, 1978/1994).

The oil created from the melting tigers might have been absorbed by the tree, acting as a fertilizer for growth. Just as grapes mature into wine in a barrel made of oak, which

symbolizes the earth, the boy too, through a journey of independence and regression, grows and is reborn into a new ego.

The tree overcomes the negative mother and grows straight toward the sky. Its roots are deeply embedded in the earth,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supplying life energy to the tree. Just as the roots absorb nutrients from the soil to support the tree, the earth becomes the starting point for inner connection and growth. The tree's branches reaching toward the sky evoke a sense of transcendence and overcoming. Similarly, to connect with the inner world, one must descend into the deep realms of the unconscious before rising again. As he descends from the tree, the boy in the story retrieves his lost items and experiences transformation and growth. Through this, his old ego is reborn as a new ego. The tree, as a fundamental entity connected to the earth, represents the beginning and source of life, holding symbolic meaning akin to a mother (Jung, 1985/2006). Moreover, through the symbolic space of sand and soil, the tree provides maternal protection and restorative energy, with the earth or sand becoming the foundation for the boy's gradual healing.

In therapy, clients also create toad houses in the sand or pour water to form caves. They may build mountains and pave tunnels for trains to pass through, or construct tall temples and towers. Sometimes, they pile sand high at the center and place a tree figure at the peak. This is likely an inner attempt at creation aimed at overcoming their wounds.

2) The story of the treasure seekers

Five siblings from London spend their summer in a countryside village with a white house, a lush garden, and an orchard. While playing in a gravel pit near their home, they discover a sand fairy named Psammead, who possesses mysterious powers. Each morning, the children make a wish to him, setting off a series of events throughout the day. Only one wish is granted each day, and by sunset, all magic fades, returning everything to normal. After experiencing a range of events, the children vow never to make another wish, and the sand fairy disappears back into the pit, bringing the story to a close (Nesbit, 1899/2006).

The children come up with elaborate wishes, but they are always met with unexpected consequences. Sometimes they find themselves in humorous situations, while other times they embark on thrilling adventures. They become beautiful, wealthy, and even grow wings to fly, but none of these bring true happiness. Through these experiences, they learn to appreciate the value of here and now. Throughout their journey, the children experience cycles of independence and regression, gradually undergoing transformation and growth.

The children experience difficult adventures due to their wishes and seek out the sand fairy to fulfill new wishes. The sand fairy always remains in the gravel pit, which serves as a safe refuge. In his book *The Great Mother*, Neumann describes clay pots as being made

from earth and sand, symbolizing the nourishing aspect of the mother archetype. Similar to the meaning of sand, the clay pot represents a maternal space where the client heals wounds and gives birth to a new ego (Neumann, 1947/2009). The gravel pit functions as a maternal space, like a clay pot, and the sand fairy seems to provide the children with maternal nourishment.

The adventures that unfold as the children make wishes filled with their desires and concerns may symbolize the need for both positive Self energy and maternal energy to develop a healthy ego. The sand fairy from the pit could be a symbol of a nurturing, supportive, and positive mother, who helps children grow into independent individuals with their own views of the world.

3. The Symbolism of Sand (Earth) in Poetry

1) “A Perspective on Gyeongju” by Seo Jeong-ju

Perhaps it is because no one has the strength to make it collapse,
the royal tombs, with yellow calves resting on them,
float in the sky like hot air balloons, drifting around.
The people, like children with their lower bodies bare,
are tied to the strings beneath, dangerously floating in the air.

(Omit)

And those royal tombs, floating off into the sky,
are held back by the pull of gravity, as though being dried by their own weight.

The royal tombs, which should be firmly rooted in fertile earth, float in the sky like hot air balloons, while people, now like children with no lower garments, dangle beneath them, drifting dangerously. Although soil symbolizes connection to the earth and protection, in the poem, the soil fails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and instead, the royal tombs float aimlessly in the air. The royal tombs drifting away without being rooted in the soil symbolize the poet's emotional regression and the absence of maternal protection. The Buddha statue at Seokguram Grotto, made of granite sand and soil from Tohamsan Mountain and a symbol of nurturing and embracing mother, protects the tombs as they drift away.

This depiction reflects a projection of his childhood experience with a negative mother complex, suggesting his inability to take ownership of his life in the external world. Being rooted in the earth symbolizes grounding oneself in reality, while drifting precariously in the air, unable to land, signifies a desperate attempt to escape the earth mother. Ascending into the air represents breaking free from the mother's hold, which is the only time he feels a sense of freedom. However, creations born in the air, without their feet laid on the

mother-earth, are mere fantasies or illusions that inevitably fall to the ground. Landing and taking root in the earth ultimately becomes the key to resolution (Kang, 2007).

The negative mother complex can bring a sense of uncertainty, instability, depression, and impatience in men, sometimes leading to feelings of helplessness and even encouraging suicide (Jung, 1964/2013). Seo, deeply affected by the anguish of the Korean War, endured mental illness and attempted suicide during his time as a refugee. He had few memories of receiving warm care from his mother during childhood, with his earliest recollections of his mother tied to feelings of shame. Later, the image of his mother as a controlling and commanding figure became a representation of his negative mother complex. This poem symbolizes the experience of being unable to firmly root oneself in the earth due to a lack of maternal nurturing, or the maternal energy that provides grounding. Through the projection of the anima—the feminine archetype in his unconscious—onto prominent female figures of the Silla dynasty, such as Queen Seondeok, Seo was able to transcend the negative mother complex born from the lack of nurturing, support, and positive maternal experiences (Jeong, 2023).

2) “Two Acorns” by Park Nohae

Two acorns picked up on a mountain path:
One is small and insignificant,
The other is large and shiny.

(Omit)

I threw the small, insignificant acorn
into the distant, empty forest with all my might.
Do not cry, for you will bury yourself and become an oak tree.

The acorns, which sprout and grow by receiving the life force of the mother oak tree, each develop with distinct traits. As they grow, they desperately struggle, proclaiming “I am the bigger and more brilliant one,” until they fall to the ground. In the process, the acorns embark on a hero’s journey to discover what truly matters and to understand their true worth.

Being cast into the empty fores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delving into one’s deepest nature to discover and fully experience its essence. In many stories, protagonists enter the forest when they reach a dead end or feel that life has come to a standstill. Immersing themselves in nature, they uncover pure beauty and healing powers, which ultimately lead to their transformation into more mature individuals. Entering the forest may seem like regression from an outward perspective, but it is, in fact, a space of creative regression for healing and re-organization (von Franz, 1972/2020). The abundant natural elements in the

forest grow through the earth's positive nurturing and the constellation of its healing energy.

The earth represents an inner journey toward maturation and self-discovery. The transformation of an acorn, buried deep in the soil and growing into an oak tree, illustrates the earth's power for protection and growth. The act of the small acorn immersing itself in the soil mirrors the process of a Sandplay therapy client, connecting with the earth to heal wounds and resolve conflicts. Buried in the depths of the earth, the acorn explores itself from deep within, as if going on a hero's journey, burying its old ego and preparing for rebirth as an oak tree.

Focusing on the depths of oneself is like burrowing into the earth, akin to a deceased person returning to Mother Earth. Just as a treasure is hidden in the darkness of the unconscious (Jung, 1985/2006), an acorn also plunges into the deep darkness of the earth, buries the old ego, and, after a long journey in search of the treasure—the Self—emerges by breaking through the earth to become the oak tree.

III. Symbolism of Sand as the Foundation of Life in Sandplay Therapy Cases

1. Case 1

Youngkwang, an 11-year-old boy in the fifth grade, was referred for therapy due to PTSD caused by a traumatic incident in which he was attacked by a high school student. Since the event, he had experienced anxiety when alone at home or in the presence of male figures similar in age to his attacker. He also struggled with reading and writing, receiving support at a speech and language therapy center. These academic difficulties significantly impacted his self-esteem. In addition, Youngkwang had wounds from negative feedback about his



Figure 1. Youngkwang's Sandpicture from Session 9



Figure 2. Youngkwang's Sandpicture from Session 10

academic performance from adults, including his parents and teachers, as well as teasing and ridicule from his peers.

During his ninth Sandplay therapy session, Youngkwang began by digging into the sand with his fingers, feeling it with his hands. Using an excavator shovel, he scooped the sand and remarked, "The sand feels heavy today." He leveled the ground with construction vehicles and used his hands like an excavator shovel to dig and cultivate the sand. He created Jeju Island and Hallasan Mountain, commenting, "It looks like rice in a bowl." After pouring water into a small container and placing it at the peak of Hallasan, he declared, "Jeju Island is complete." Youngkwang then shared, "Jeju Island is where I was born. Now that I've made Jeju Island, I feel like I can do anything."

Youngkwang created the Oreum, a volcanic cone in Jeju where he was born, using an excavator figure and his hands. On this day, he was reborn in the Jeju he had created. He was no longer the child who had suffered from violence and was insecure due to teasing from his peers. Instead, he was reborn as a strong child with the confidence and power to face challenges. To be reborn, Youngkwang dug and piled sand with his hands and the excavator, creating Jeju. In other words, he dug out the rough, hardened earth and created soft soil for cultivation. The process of Youngkwang using his hands like an excavator, digging the earth, and envisioning a rice bowl while completing Jeju Island seems to represent the process of his healing and creative energy being constellated. Digging the sand with his hands can be seen as an active effort to uncover what lies beneath the surface (Steinhardt, 2000/2010). This is similar to how farmers, in the spring, overturn the hardened earth of winter to prepare for sowing. It is the creation of new life.

Jeju Island itself is considered an Oreum, and according to legend, these volcanic hills were formed from earth that Seolmundae Halmang scooped up with her skirt. In a similar vein, Youngkwang created his own Oreum by shaping sand with his hands, embodying the

nurturing, positive energy of his inner mother. This act represents a new creation of self, and the constellation of his positive, archetypal mother that fosters self-esteem and aids in healing his emotional wounds. The sand stimulates our innate maternal, healing, and creative abilities, allowing that energy to be constellated. Symbolically, the sand also includes the therapist, who assumes the role of a supportive mother during this transitional phase. With the combined support of the inner mother archetype and the therapist, the client overcame his complex and expressed newfound confidence, saying, “Now, I feel like I can do anything.”

In the 10th session, Youngkwang expressed a desire to create a farm and observed that it appeared larger than he had initially imagined. This perception of the farm’s size mirrors Youngkwang’s perception of himself as having become bigger, as he restructured his inner world and activated his inner positive energy through Sandplay therapy. Just as hands help overcome wounds and activate healing energy (Jang, 2024), the client’s hands, channeling this healing energy, planted young rice plants and sweet potato seeds, symbolizing the creation of new life. Water, which breathes life into new beginnings (Cooper, 1978/1994), was also poured to nurture the ground—a foundation for creative living—and to foster the birth of a new ego.

Youngkwang buried three stones in the sand and said, “These are *songpyeon* (rice cakes). They’ve aged very well.” Then, he put sand and water to a bathtub and proudly declared, “I made rice cake soup. I want to become president, so I made enough soup for 2,000 people to share it. I think they’ll enjoy it and vote for me. My original dream was to join the navy, but after playing with the sand today, it changed to becoming president.”

Through the positive maternal energy within, Youngkwang cultivated his inner land, planting grass and sweet potatoes, and carefully nurturing them by watering the soil. Just as crops grow over time, his inner world would also come to thrive. Additionally, he filled a bowl with water to represent the crater lake of Hallasan. Imagining Jeju Island cradling Hallasan, he likened it to a bowl filled with rice and envisioned making rice cake soup by filling a bathtub figure with sand and water. This process symbolizes the feminine principles of acceptance and abundance (Cooper, 1978/1994), reflecting his inner growth that enables him to contain himself.

The client demonstrated a strong determination to take control of his own life, much like a president governing a nation, and tried to restore connections with others and overcome his relational trauma. Just as he buried *songpyeon* in the sand to let them age and develop richer flavors, h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negative mother within himself, buried the positive mother in the sand to foster growth and lay the creative foundation for a new life.

2. Case 2

Saebom, a 9-year-old second-grade boy with ADHD, was referred for counseling by his mother due to psychological anxiety, including tic symptoms from medication and conflicts with her. His mother described him as well-mannered and able to get along well with friends. She explained that he tends not to express negative feelings toward others and tends to over-accommodate, which often leads him to give up on things, causing psychological distress.



Figure 3. Saebom's Sandpicture from Session 5



Figure 4. Saebom's Sandpicture from Session 10

When Saebom first touched the sand and connected with his inner world, he reacted by saying, “It feels fascinating,” indicating that the sand helped awaken his basic sensory experiences. Except for the first session, he engaged in play using only the sand, in silence, without any figures. Just as the world was created in absolute silence and primordial darkness (Jang & Lee, 2020), Saebom, too, was creating his own world for rebirth, alternating between regression and independence while silently connecting with the sand.

In the fifth session of Sandplay therapy, Saebom mixed sand and water and said, “When I

sprinkle water, the sand becomes soft and warm.” The sand seemed to move him, awakening all his senses, and he commented, “It sounds nice,” showing how he connected with his inner world and the sacred experience of the Self energy being constellated. He then created a high mountain with a crater, filled the crater with water, and, putting one ear close to it, listened to the sound in silence. This demonstrated the sacredness that comes with immersion. The therapist, too, shared in the sacredness of that still moment, feeling connected to the client’s inner world.

Saebom’s active exploration of the sand and his focus on tactile responses seem to reflect his attitude toward the old ego, which has been trapped by a negative maternal complex and has suppressed negative emotions. During the purification and rebirth of the old ego, the therapist was also immersed in the experience and felt the sacred energy of the moment. Schore (2019/2022)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conscious, aff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client’s right brain and the therapist’s right brain in psychotherapy, which occurs beyond the spoken words. He also noted that symbolic work helps access the deeper layers of the unconscious system. He also explained that when affect moments are heightened, the implicit-procedural memories in the client’s unconscious are reactivated and reenacted with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Saebom explored the sand by kneading, tapping, feeling, and shaping it, facilitating sacred and tranquil work in the unconscious. This process is an emotional experience connected to healing archetypal images. A sacred experience can be characterized as a profound peak moment of silence, stillness, and wordlessness (Jang & Lee, 2020).

In the tenth session of Sandplay therapy, Saebom created a house that provided safety and protection on the ground well prepared with his own hands, a foundation for life. He then stamped his palm on the sand, as if asserting his identity as the owner of the house. He said, “I feel like my tone and voice have changed. It feels like I’m moving from second grade to third and fourth grade.” Steinhardt (2000/2010) explained that a hand imprint in the sand is a concrete mark of existence, representing a conscious being.

In the fifth session, when Saebom filled the crater of a high mountain with water and pressed his ear to listen in silence, he may have been hearing the voice of his own growth. He was experiencing his inner transformations and growth directly through his body, reflected in the changes in his tone and voice.

In the eleventh and final session, Saebom expressed his transformation by drawing two pictures: one of himself before therapy and one after. Before therapy, he depicted himself holding a “small and poorly drawn picture,” while after therapy, he showed himself holding a “big and well-drawn picture,” explaining the changes he had underg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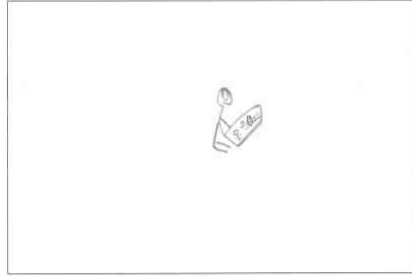


Figure 5. Saebom's Drawing of Himself Before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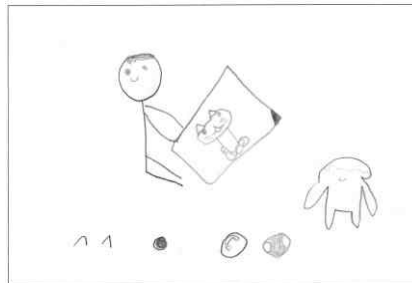


Figure 6. Saebom's Drawing of Himself After Therapy

Saebom, who had previously overly accommodated the needs of others, experienced a reconnection of his ego-self axis through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archetypal energy in Sandplay therapy. This process helped him establish order in his daily life and reinforced his ability to regulate emotions (Jang, 2024), becoming a child who can express his needs well. The sand, with its maternal energy providing protection and growth, moved Saebom to heal himself and reorganize his inner world. As reflected in his drawing, he had created a new foundation for life, growing into a “bigger” individual.

IV.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s the symbolism of sand, focusing on its role as a positive, supportive, maternal, and earth-lik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life as experienced by clients in Sandplay therapy.

Sand represents the earth in its natural state, giving birth to, nurturing, and sustaining all life. Ultimately, it is the place where all life returns after its end. The earth symbolizes the mother and healing; the mother is the source from which we are conceived, born, and grow.

The mother archetype has two aspects: Positive maternal archetypal energy is nurturing, compassionate, fosters growth, and provides nourishment. In contrast, negative maternal archetypal energy is cold, symbolized by darkness, the abyss, consuming, tempting, poisoning, hindering growth, regression, and devouring (Jung, 1984/2002). Which aspect manifests or is constellated depends on an individual's personal experiences. In other words, archetypal manifestation does not occur without external stimuli (Neumann, 1973). In the cases of the two child clients, their deep connection with sand in Sandplay therapy stimulated their inner maternal, healing, and creative aspects, constellating the positive maternal archetypal energy and enabling them to heal themselves.

Sand evokes movement and inspires creativity in the client. Symbolic expressions and powerful emotions open the door to the unconscious, awakening all the senses. Within a free and protected space, the client can create sandpictures that reflect the fantasies flowing within their inner world, gaining an understanding of the messages of their unconscious. This process of bringing the unconscious into consciousness fosters creative outcomes, including healing, extended personality, and maturity (Jang, 2024).

Shakespeare (2000) once said, "Our bodies are our gardens—our wills are our gardeners." On the sand garden, symbolizing the earth as the mother that births and shapes life, the client engages their hands, allowing the deep unconscious to act as the gardener, quietly cultivating the foundation for the life they are meant to live and heal. Alongside the sand and the free and protected space of Sandplay therapy, the therapist serves as a sacred presence, offering containment and endurance.

Reference

- Bannerman, H. (2013). *The story of Little Black Sambo* (translated by Heo, M. S.). Gyerimbooks. (original publication in 1899)
- Cooper, J. C. (1994).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ranslated by Lee, Y. K.). Kachibooks. (original publication in 1978)
- Grimm, C. L. J., & Grimm, C. W. (2001). *Old German Stories Told by the Grimm Brothers* (translated by Kim, J. H.). Woongjinjunior.
- Jang, M. K. (2024). *Analytic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2nd Edition*. Hakjisa.
- Jang, M. K., & Lee, Y. R. (2020). Numinose of Play and Its Healing Teleology.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1(2), 1-43
- Jeong, Y. J. (2023). Seo Jeong-ju's Mother Complex and Journey of the Poetics of Eternity: Focused on the Symbolization of the Anima. *The Korean Poetics Studies*, 74, 169-206
- Jung, C. G. (2002). *Archetyp und Unbewußtes*. C. G. Jung Bd. 2. Walter-Verlag AG.

- (translated, in to Korean in 2002 by Jung Institute of Korea). (original publication in 1984)
- Jung, C. G. (2006). *Heros und Mutterarchetyp*. C. G. Jung Bd. 8. Walter-Verlag AG. (translated, in to Korean in 2024 by Jung Institute of Korea). (original publication in 1985)
- Jung, C. G. (2013). *Man and His Symbols* (translated by Lee, B.Y. et al.). The Open Books Co. (original publication in 1964)
- Kang, C. J. (2007). Mother Complex in Men. *Shim-song Yon-Gu*, 22(2), 79-151
- Kim, C. H. (2018). Study on the Globalization Strategy in Myth of Jeju island-Focusing Seolmoondaehalmang and Jacheongbi. *Inmunhak Yon-Gu*, 30, 347-372
- Kim, M. K. (2015). The Study on Symbolic Meaning of Toad in the Sandplay Therapy. *Korean Journal of Sandplay Counseling*, 11(2), 6-25
- Kim, S. Y. (2021, July 3). *Toad, toad, I'll give you my old house. Give me a new one.* *Toadtown Newspaper*. pp. 15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2). *Encyclopedia of Korean Folk Literature: Folktales*. Pyeongsari.
- Nesbit, E. (2006). *The story of the treasure seekers* (translated by Haetsalgwanamukkun). Biryongso. (original publication in 1899)
- Neumann, E. (1973). *The child*. Shambhala.
- Neumann, E. (2009). *Die Grosse Mutter* (translated by Park, S. H.). Sallimbooks. (original publication in 1974)
- Park, N.H. (2010). *So don't disappear*. Slow walk
- Schore, A. N. (2022). *Right brain psychotherapy* (translated by Kang, C. M). Hakjisa. (original publication in 2019)
- Seo, J. J. (1994). *A collection of Midang's poems I*. Minumsa.
- Shakespeare, W. (2000). *Shakespeare's collection of quotes read with the original language* (translated by Lee, T. J.). Beomusa.
- Steinhardt, L. F. (2010). Foundation and form in Jungian sandplay. (translated by Kim, Y. K.). Hakjisa. (original publication in 2000)
- Steinhardt, L. F. (2013). *On becoming a Jungian sandplay therapist: The healing spirit of sandplay in nature and in therap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von Franz, M-L. (2020). *The Feminine in Fairy Tales*(translated by Park, Y. S.). Jipmundang. (original publication in 1972)
- Weinrib, E. L. (1983). *Images of the Self: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Sigo Press.

Received : September 30, 2024

Revised : December 15, 2024

Accepted : December 24, 2024